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우정희* · 유승연**†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Effects of the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Role Confli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Woo Chung-Hee* · Yoo Seung-Yeo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Professor, Dep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e degree of gender sensitivity, gender role conflict,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nursing professionalism.

Methods: During Jan. 19 to Feb. 5 in 2021,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187 nursing students by on-line research method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mean comparison(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5.0.

Results: The gender sensitivity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ender role conflict had negative relationship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prediction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major satisfaction, gender sensitivity and gender role conflict. The total variance was 8.2% by predictors.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various way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major should be sought, and program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gender sensitivity and reduce gender role conflict.

Key words: Gender role conflict, Gender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8R1C1B600 2021)

접수일 : 2021년 07월 16일, 수정일 : 2021년 08월 12일, 채택일 : 2021년 08월 15일

교신저자 : 유승연(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042-629-8476, Fax: 042-629-8480, E-mail: yoo3282@hnu.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기반을 둔, 간호사의 활동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으로써의 견해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신념 또는 관념이다(윤은자 등, 2005). 간호대학생은 전공지식과 임상실습을 통해 진정한 간호전문직관이 형성 및 변화되고 발달된다(장태경, 2014).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간호전문직관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직업에 대한 목표가 불분명해지며 바람직한 간호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윤은자 등, 2005). 따라서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대학생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특히 세계적으로 간호직을 선택하는 남성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Betty, 2019), 우리나라도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직업선택의 성차별 붕괴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남자간호사 수가 2004년 829명에서 2020년에는 총 20,142명으로 약 24배 증가하였다(대한간호협회, 2020). 실제로 간호전문직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이 모두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이 주류인 직업에 도전하는 여성보다 여성이 다수를 이루는 직업에 도전하는 남성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다(안은성과 추수경, 2011). 또한 환자와 보호자도 남자간호사가 간호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남자간호사가 느끼기에도 환자들이 여자간호사가 자신을 간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sher, 2009). 따라서 간호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이미지 및 편견에서 벗어나 남·녀 평등 인식을 보다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황하만과 김명자, 2017). 이에 간호대학생들이 향후 간호전문가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나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과 같은 젠더

와 관련된 인식들이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젠더와 관련되는 이슈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젠더 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차이가 미치게 되는 영향, 즉 성차별이나 젠더 불평등까지 포괄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진영, 2011). 성인 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대학 시절을 통해 가장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로 자아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김성현 등, 2019). 그러나 실제로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제도 때문에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또는 양성평등의식을 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성과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사회화된 고정관념을 재조정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다른 성관련 문제나 상황을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유재원, 2019; 주경숙 등, 2020; 정재원과 이은아, 2018; 김성현 등, 2019).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이 전문직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김나정(2020)의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담관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대 보건의료계는 성별에 민감한 의료 서비스가 점차 발달하고 있어 의료인들은 성인식을 향상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야 하므로(Halime et al., 2011)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성역할은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에서 기대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개인 행동 양식으로, 그 사회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나 행동, 가치, 규범 등에 따라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부여하고 이

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한다(O'neil, 2013). 즉, 성역할은 사회적 성으로써 유전적 성(생물학적 성)과는 다르게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으로만 정의되며 생물학적 성과 반드시 일치되지는 않는다(이수연 등, 2011). 따라서 성역할 갈등이란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내재화된 성역할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리 상태로써 이런 갈등은 자신의 실제적인 인간적 특성을 제한하거나 타인의 특성까지도 제한하게 된다(O'neil, 2013). 의료기관에서 성역할 갈등은 특히 남자간호사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여성 중심의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 사직하는 경우가 많으며(염은이와 서금숙, 2016), 여학생이 주류를 이루는 간호학과 남학생들의 경우도 여성 위주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으로 인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전해옥과 염은이, 2014).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에 주목하고 있는데 즉, 성역할 갈등 정도가 낮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게 나타나거나(이중근과 김중경, 2020; 전해옥과 염은이, 2014),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정추영 등, 2019), 성역할 갈등과 진로준비행동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채민정과 정효주, 2018). 그러나 여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정도를 살펴보거나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등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학의 정체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견해를 올바르게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남·여 간호대학생 모두에게서 성역할 갈등이나 성인지 감수성 등을 포함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확인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역할 갈등과 더불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차이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정체성을 확

립하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을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간호대학(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자료 자료수집 시점에서 온라인 접속과 사용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며,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와 응답이 가능한 자료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산정 프로그램인 G*Power 3.0.10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2

개의 예측변수(성별, 연령, 종교, 학년, 학업성적, 입학동기,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여성학관련 강의 수강 유무,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중간 효과크기 0.15 기준, 유의수준 5%, 검정력 95%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는 184명이나 탈락률 20%정도를 감안하여 22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학생이 최소 1/3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70명 이상 모집하였으며, 최종 연구대상자는 여학생 120명, 남학생 67명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가 기술행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9문항, 성인지 감수성 31문항, 성역할 갈등 12문항, 간호전문직관 26문항으로 총 78문항이며 구체적인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젠더 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며, 새로운 소통 방식을 연습하는 과정이다(이진영, 2011).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Chen & Starosta(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척도와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척도를 참고하여 이진영(2011)이 개발한 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유재원(2019)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도구는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7문항, 자기성찰 8문항, 비폭력 7문항,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9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재원(201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2) 성역할 갈등

성역할 갈등이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이 내재화되어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O'Neil et al., 1986). 성역할 갈등 측정도구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남성을 대상으로는 이수연 등(2011)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도구를, 여성을 대상으로는 김지현(2008)의 여성 성역할 갈등 도구를 사용하여 성별 고유특성을 원도구대로 확인하였다. 다만 분석단계에서 남성 전용의 이수연 등(2011)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남성과 여성에 사용한 도구(유주연, 2019)를 참고하여 성공·권력·경쟁, 동성(남성 또는 여성) 우월, 가정 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동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등 6개 하위영역의 각 2문항씩 총 12문항을 매칭하여 분석함으로써 성별 비교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주연(2019)의 연구에서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alpha .74, 남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alpha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alpha .68, 남자대학생의 경우 신뢰도 Cronbach's alpha .71로 나타났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해 갖게 되는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전문가가 행하는 간호활동과정이나 그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로, 전문인으로서의 행동 기준을 제공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가치 및 개념들을 제공한다(Weis & Schank, 2009).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해 윤은자 등(2005)의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한 이시라(2011)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 전문성 4문항, 간호 실무 역할

3문항, 간호 독자성 2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시라(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과 주제의 특성상 온라인에 의한 편의추출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전문 온라인 서베이 기관을 통하여 생산된 설문 자료는 간호대학생이 주로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너스노트(<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lp.com.nursenote>), 너스케이프(<https://www.nurscape.net>) 및 널스라이프(<https://www.nurselife.or.kr>)를 활용하여 2021년 1월 19일부터 2021년 2월 5일까지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문 링크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여부는 외부압력이 없이 자율적인 의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대상자는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미 제출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동의서는 연구목적, 온라인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설문 종료 후 소정의 보상(온라인 편의점 쿠폰 3,000원 내외)을 제공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중도에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동의서에 명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IRB No. KYU-2020-197-01)을 받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64.2%이었으며 연령은 21세~22세가 37.4%로 가장 많았고, 과반수 이상이 종교가 없었으며(63.1%), 3학년(28.3%)과 4학년(48.7%)이 대부분이었다. 학업성적은 '중'이 61.5%, 입학동기는 취업보장(50.3%)과 적성 및 흥미(38.5%)가 주를 이루었다.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보통(41.7%, 39.6%)과 만족(53.5%, 33.1%)이 대부분이었으며, 여성학관련 강의(공부,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58.3%로 나타났다(표 1).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성인지 감수성은 일반적 특성 중 성별($t=-5.63$, $p<0.001$), 종교($t=-2.97$, $p<0.01$), 전공만족도($F=3.32$,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과 종교가 있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으며, 전공만족도가 만족이거나 보통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

변수는 없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F=4.12$, $p<0.05$), 임상실습만족도($F=6.613$, $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만족도가 만족이거나 보통인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 정도

가 높았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이거나 임상실습을 나가지 않은 경우가 보통 또는 불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2).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N=187)
특성	구분	n(%)	
성별	남	67(35.8)	
	여	120(64.2)	
연령 (M±SD: 22.7±0.85)	≤20	42(22.5)	
	21~22	70(37.4)	
	23~24	54(28.9)	
	25≤	21(11.2)	
종교	있음	69(36.9)	
	없음	118(63.1)	
학년	1학년	12(6.4)	
	2학년	31(16.6)	
	3학년	53(28.3)	
	4학년	91(48.7)	
학업 성적	상	49(26.2)	
	중	115(61.5)	
	하	23(12.3)	
입학 동기	취업보장	94(50.3)	
	적성/흥미	72(38.5)	
	지인권유	16(8.5)	
	기타	5(2.7)	
전공 만족도	만족 ^a	100(53.5)	
	보통 ^b	78(41.7)	
	불만족 ^c	9(4.8)	
임상실습 만족도	만족 ^a	62(33.1)	
	보통 ^b	74(39.6)	
	불만족 ^c	19(10.2)	
	비해당 ^d	32(17.1)	
여성학 경험	있음	109(58.3)	
	없음	78(41.7)	

〈표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N=187)

특성	구분	n(%)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	67(35.8)	2.94±0.40	-5.63 (.000)***	3.00±0.63	-1.38 (.306)	3.85±0.48	1.43 (.154)
	여	120(64.2)	3.33±0.48		3.15±0.73		3.75±0.43	
연령	≤20	42(22.5)	3.24±0.54	1.66 (.177)	3.28±0.71	1.88 (.134)	3.82±0.42	0.28 (.838)
	21~22	70(37.4)	3.25±0.42		3.12±0.73		3.76±0.44	
	23~24	54(28.9)	3.14±0.54		2.98±0.63		3.77±0.43	
	25≤	21(11.2)	3.01±0.40		2.92±0.64		3.85±0.61	
종교	있음	69(36.9)	3.06±0.42	-2.97 (.003)**	3.16±0.72	1.01 (.471)	3.83±0.47	0.93 (.354)
	없음	118(63.1)	3.27±0.50		3.05±0.68		3.77±0.44	
학년	1학년	12(6.4)	3.16±0.54	0.15 (.930)	3.28±0.99	0.60 (.614)	3.63±0.46	2.04 (.110)
	2학년	31(16.6)	3.24±0.52		3.14±0.67		3.83±0.43	
	3학년	53(28.3)	3.19±0.49		3.13±0.69		3.89±0.44	
	4학년	91(48.7)	3.18±0.47		3.03±0.67		3.73±0.45	
학업 성적	상	49(26.2)	3.23±0.47	0.37 (.691)	3.02±0.67	0.33 (.717)	3.83±0.46	0.27 (.767)
	중	115(61.5)	3.17±0.45		3.11±0.71		3.78±0.47	
	하	23(12.3)	3.23±0.66		3.13±0.72		3.75±0.47	
입학 동기	취업보장	94(50.3)	3.16±0.49	1.02 (.384)	3.09±0.69	0.19 (.903)	3.71±0.44	2.24 (.085)
	적성/흥미	72(38.5)	3.23±0.44		3.12±0.66		3.89±0.43	
	지인권유	16(8.5)	3.27±0.64		3.01±0.88		3.74±0.55	
	기타	5(2.7)	2.90±0.38		2.95±0.94		3.88±0.53	
전공 만족도	만족 ^a	100(53.5)	3.25±0.49	3.32 (.038)* a,b>c	3.11±0.73	0.30 (.970)	3.87±0.43	4.12 (.018)* a,b>c
	보통 ^b	78(41.7)	3.15±0.46		3.08±0.65		3.87±0.67	
	불만족 ^c	9(4.8)	2.85±0.52		3.09±0.82		3.68±0.43	
입상실습 만족도	만족 ^a	62(33.1)	3.23±0.46	0.24 (.868)	3.08±0.67	0.43 (.729)	3.96±0.41	6.613 (.000)*** a,d>b,c
	보통 ^b	74(39.6)	3.17±0.45		3.04±0.72		3.64±0.41	
	불만족 ^c	19(10.2)	3.22±0.66		3.15±0.71		3.70±0.57	
	비해당 ^d	32(17.1)	3.16±0.51		3.20±0.70		3.84±0.44	
여성학 경험	있음	109(58.3)	3.22±0.48	0.98 (.327)	3.06±0.67	-0.68 (.350)	3.79±0.45	-0.11 (.916)
	없음	78(41.7)	3.15±0.49		3.13±0.73		3.79±0.45	

*p<0.05, **p<0.01, ***p<0.001, a<b(scheffe)

3.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정도

성인지 감수성 평균평점은 3.19(±0.48), 성역할 갈등은 3.06(±0.67), 간호전문직관은 3.79(±0.45)로 나타났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성($r=.15, p<0.05$)을 보였으며, 성역할 갈등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r=-.22, p<0.01$)을 나타냈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역할 갈등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4).

〈표 3〉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수준

변수	M±SD	범위	최소값	최대값
성인지 감수성	3.19±0.48	1~5	1.90	4.48
성역할 갈등	3.09±0.70	1~6	1.33	4.92
전문직관	3.79±0.45	1~5	2.58	5.00

(N=187)

〈표 4〉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

	성인지 감수성 r(p)	성역할 갈등 r(p)
성역할 갈등	-.08(.574)	
간호전문직관	.15*(.039)	-.22**(.005)

(N=187)

* <0.05 수준에서 유의, ** <0.01 수준에서 유의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와 상관성 분석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을 독립변수로 투여하고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통계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임상실습을 나가지 않는 경우 임상실습만족도 자체 값이 없으므로 무응답 처리 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상관계수 -.02~.63, 분산팽창인자 1.004~1.106, 공차한계 .904~.998, Durbin-Watson 검정 결과 2.068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으며,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은 전공만족도($\beta =-.16, p<0.05$), 성인지 감수성($\beta =-.19, p<0.01$), 성역할 갈등($\beta =-.21, p <0.01$)이므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8.2%로 나타났다($F=4.994, p<0.001$)(표 5).

〈표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N=187)
변수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5.02	.29		17.33	<.001		
전공만족도	-.13	.06	-.16	-2.28	.025	.904	1.106
임상실습만족도	-.02	.04	-.05	-0.73	.471	.927	1.081
성인지 감수성	-.17	.07	-.19	-2.62	.008	.972	1.027
성역할 갈등	-.15	.04	-.21	-2.90	.005	.998	1.004

R²=.093, Adj.R²=.082, F=4.994, p<.001, Durbin Watson=2.068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이 양성 평등적 입장에서 올바른 간호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5점 만점에 3.19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측정한 조영미와 이주연(2020)의 연구에서 3.23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낮았다. 그러나 이는 여학생에 비해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낮은 남학생의 비율이 본 연구에서는 36%정도이나 조영미와 이주연(2020)의 연구에서는 23.1%이기 때문에 전체 평점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조사한 주경숙 등(2020)의 연구와 리루이(2019)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에 비해 남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게 나타나 이는 전통적인 젠더 통념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분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성인지 감수성의 성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써(리루이, 2019) 향후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 문화적 발전

에 따라 성별에 따른 성인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는 성별, 종교, 전공만족도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조영미와 이주연, 2020; 주경숙 등, 2020; 리루이, 2019) 유사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령 또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종교나 전공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조영미와 이주연, 2020; 주경숙 등, 2020) 추후 반복 확장 연구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 변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성역할 갈등은 6점 만점에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학생 3.00점, 여자 대학생은 3.15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인초기 남녀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한 유주연(2019)의 연구에서 남자 3.01점, 여자 3.11점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을 이수연 등(2011)의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원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들에서는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수준이 본 연구에서보다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즉, 진해옥과 염은이(2014) 연구와 정주영 등(2019)의 연구에서 각각 6점 만점에 3.21점과

3.43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종근과 김중경(2020)의 연구에서는 3.70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남자 간호대학생은 학과 생활에서 여학생들과 끊임없는 경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며, 졸업 후 대부분이 여성인 동료 간호사들 속에서 압박감을 가지고 근무하게 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성역할 갈등이 일반 남자대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이종근과 김중경, 2020) 하였다. 반면에 어떤 연구자들은 남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보다 여성지배적인 학과를 선택한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 수준이 더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여성지배적인 학과 선택 시 이미 성역할 갈등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선행됨에 따라 그 갈등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해옥과 염은이, 2014). 따라서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근거기반 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정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자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김지현(2008)의 원도구를 사용하여 성인 초기 직장 여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한 전연안(2016)의 연구에서 6점 만점에 4.28점, 여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한 김지현(2009)의 연구에서 4.35점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낮았으나, 임상간호사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한 한지연 등(2020)의 연구에서 3.25로 나타난 것과는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여성성이 강조되는 성고정관념이 높기 때문에(안은성과 추수경, 2011) 간호학과 학생 및 간호사의 성역할갈등이 일반 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성역할 갈등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는데, 전해옥과 염은이(2014)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일반적, 전공 관련 특성 중 성역할 갈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하였으나, 이종근과 김중경(202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추후 반복 확장 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79점으로 같은 도

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 한 장태경(2014)의 연구와 허영미(2017)의 연구에서 각각 3.80과 3.81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으며, 황은희와 신수진(2017)의 연구에서 3.91로 나타난 것에 비해 다소 낮았다. 황은희와 신수진(2017)은 일반적으로 1, 2학년 학생은 아직 임상실습 전으로 간호전문성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전공 이론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낮아 1, 2학년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77%가 3, 4학년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영미(2017)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모두 3,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 2학년을 포함한 다른 연구들보다 간호전문직관 점수가 낮게 나타나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보다 다양한 조건 및 변수들을 고려하여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황은희와 신수진(201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허영미(2017)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와 실습 만족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사하였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전문직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만족도 역시 간호대학생이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허영미, 2017) 임상실습만족도가 낮을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성역할 갈등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감수성이 높을수록, 성역

할 갈등이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직접적인 비교 해석은 제한되나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히 성차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요구하며 성차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사회의 구조나 현상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여 이를 정의롭게 변화시켜야겠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진영, 2010) 이타주의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전문직의 특성이 간호전문직관에도 내재되어 있으므로(함연숙, 2011) 두 변수 간에는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은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추영 등(2019)의 연구와 남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염은이와 서금숙(2016)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아직까지 간호는 여성으로서의 자질과 가치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남자 간호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할 경우 성역할 갈등을 야기하며 이는 간호전문직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여학생이나 여자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 실제로 간호는 여성성뿐만 아니라 남성성의 특성과 강점도 요구되고 있으며 여자 간호사도 간호에서 남성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안은성과 추수경, 2011) 추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과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반복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전공만족도($\beta = -.16$, $p < 0.05$), 성인지 감수성($\beta = -.19$, $p < 0.01$), 성역할 갈등($\beta = -.21$, $p < 0.01$)으로 나타났고, 이 변인들은 간호전문직관을 8.2% 설명하였다($F = 4.994$, $p < 0.001$). 비록 독립변수들이 설명력이 낮아 기여도는 높지 않으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거나 성역할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은희와 신수진(2017)의 연구와 장태경(2014)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대학에서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교육의 성과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개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하겠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는 시도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황하만과 김명자(2017)의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갈등은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이직의도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갈등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은 높고,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역할 갈등을 적게 경험할수록 직무만족을 높여 이직의도를 낮춘다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보다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간호전문직관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반복 확장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역할 갈등은 모두 간호전문직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학(학과)차원에서 교과 및 비교과 측면의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젠더 트레이닝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며, 성역할 갈등을 낮추기 위한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간호의 양성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재원과 이은아(2018)는 젠더에 대한 이슈 중 먼저차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차별로 성차별이나 성정체성 등 미세하지만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차별을 의미한다. 간호계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는 기존의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간호업무 중 남성 또는 여성의 측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하여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쳐온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먼저 차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고 세밀한 수정작업 등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과 성역할 갈등과 같은 젠더 이슈에 주목하여 이들이 간호전문직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며, 향후에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현재까지는 미흡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해보는 반복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성고정관념, 성정체감, 성평등의식과 같은 또 다른 젠더 이슈들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비교 분석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또한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나정. (2020). 전문상담교사의 성인지감수성이 인지공감능력을 매개로 상담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2. 김성현외 6명. (2019).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8(4), 3-36.
3.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토사 개발* (연구보고서 v.250-4).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 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4), 1-22.
5. 김지현. (2009).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 간 관계에서의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0(3), 239-256.
6. 대한간호협회. (2020.11.23.). 카드뉴스 - 숫자로 보는 간호사2. http://www.koreanurse.or.kr/board/board_read.php?board_id=cardnews&member_id=&no=11&find=&search=&position=2에서 인출.
7. 리루이. (2019). 한·중 대학생 '젠더감수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8. 안은성, 추수경. (2011).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7(1), 14-21.
9. 염은이, 서금숙. (2016).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간호전문직관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794-804.
10. 유주연. (2019). 성인 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 유형별 성역할 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의 차이[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1. 유재원. (2019). 대학생의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관계에서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2. 윤은자, 권영미, 안옥희. (2005).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개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13.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2011).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연구보고서 v.11).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 이시라. (2011). 남자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수원: 아주대학교 대학원.
15. 이종근, 김중경. (2020). 남자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9), 170-177.
16.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7. 장태경. (201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18. 조영미, 이주연. (2020). 간호대학생들의 성지식 및 피임태도와 성인지 감수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9), 221-228.
19. 전연안. (2016). 성인 초기 여성 직장인의 성역할갈등과 관계적 공격성 간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 전해옥, 염은이. (2014).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 학업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 796-807.
21. 정재원, 이은아. (2018). 대학생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젠더 트레이닝: 여성학 교양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2(5), 11-35.
22. 정추영, 서영숙, 강복희, 조은하. (2019). 남자 간호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7(1), 1248-1256.
23. 주경숙, 김경미, 이진표. (2020). 대학생의 사회성, 자아존중감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6), 213-229.
24. 황은희, 신수진. (201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1(1), 97-108.
25. 황하만, 김명자. (2017). 남자간호사의 성역할 갈등,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3(1), 32-41.
26. 허영미. (2017).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27. Betty, E. (2019, 2020 July 14). The male nurse: Benefits and percentages of men in nursing. <https://www.snhu.edu/about-us/newsroom/2019/05/male-nurse>에서 인출
28. Chen GM, Starosta W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29. Fisher MJ. (2009). 'Being a Chameleon': labour processes of male nurses performing body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12), 2668-2677.
30. Halime. CA, Toine. LM, Widdershoven. AM, Tineke. AA. (2011). Bringing gender sensitivity into healthcare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4(2), 143-149.
31. O'Neil JM, Helms BJ, Gable RK, David L, Wrightsman LS. (1986). Gender-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32. O'Neil JM. (2013). Gender Role Conflict Research 30 Years Later: An Evidence-Based Diagnostic Schema to Assess Boys and Men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1(4), 490-498.

33. Wies D, Schank MJ. (2009).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Nurses Professional Values Scale-Revised.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7*(3), 221-231.